

# 제2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2023. 12. 22.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2월 22일(금) 13:45~17:1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28호, 제229호, 제231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2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28호 『OOOO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29호 『OOO 등 101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함.

- (위원장) 동 일괄안건은 위원님들 간의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혐의자 ♠♠♠♠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후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혐의자 □□□□ 또한 매도 가능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하여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

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바 원안대로 74억 6,760만 원의, 114억 3,52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또한, 수탁자인 [ ]은 공매도 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원인과 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에 있어 위반행위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재산정 될 필요가 있다는 자조심 의견을 수용하여 수탁자인 [ ]에 대해 76억 2,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제228호는 원안의결하고, 제229호는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228호는 원안의결\*, 제229호는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31호 『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재상정』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17호 『O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고 대심제를 실시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첫 번째는 이메일상에 ‘Worst case’ 문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비용인식 주체인 자회사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자회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든 간에 EPC에는 잠재리스크를 다 포함한 숫자를 제출하라는 별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기에 EPC가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포함한 것임. 다음으로는 Worst case 추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2019년 이전부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여서 직원들의 설득이 어려웠고, 2019년 9월에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의사결정 하에 잠재리스크를 포함한 최대한 적자로 전망되는 것을 가져 오라고 얘기했던 것임. 다음은 수주 규모(size)와 본사 개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음. 실질적인 본사 영향력(impact)은 수주 규모(size)가 아닌 매출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해외 자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또한 고정사업장이슈(issue)로 개입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 및 OE Target과 Activity Code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금감원 기대수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자료제출 거부로 보는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 그리고 감리 방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실무진들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낸 것이고 이러한 의견차원의 진술이 법률상 허위진술에 해당하지 않음. 예상원가를 취합할 때 OE Target을 설정해서 임의로 원가차감을 했다는 금감원의 지적도 최초 견적원가 취합시 과거 경험에 근거한 전문가적 판단으로 OE Target을 반영했고 이것은 다른 프로젝트도 동일한 일반적인 업무프로세스이며 실제로 원가절감이 실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Activity Code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담당자 각자의 예산관리를 위한 편의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음. 즉, Activity Code issue는 결국 2019년말 지적금액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 금액 안에는 설계변경, 발주처 분쟁으로 인한 지연기간 추가원가나 원자재 가격상승, 세금 리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적어도 차후에 발생하지도 않은 Tax Risk, 하도업체 Claim 그리고 차후 원가절감이 실현된 OE 금액, 이 항목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2019년 지적금액 포함 및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 원가임의축소와 관련되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Activity Code가 신규로 생성되거나 분할/대체되면서 Activity Code 간에 조정이 발생된 것이며, 원가임의차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Activity Code 별로 감소된 것이 무조건 원가임의 축소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원가가 증가해서 결국에 Activity Code 주요 원가 항목이 다 소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한 것이 확실한데도 오히려 감소된 부분을 임의로 감소시킨 것이라고 본 것임. 그리고 Activity Code가 대체 되었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 제출이 안 되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위원) 회사는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 ▶ (진술인) 지적금액은 Activity Code의 감소금액만 모두 모아서 주장을 한 부분인데, 2017년도에 Activity Code가 왜 감소하고 증가했는지 그 코드변동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고서(report)를 작성해서 다 드렸음.
- (위원) 2019년 지적된 공사예정원가 미반영 금액은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2019년말 현재 계약상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았고 2020년 5월에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서 이것을 2020년에 반영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인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회사는 이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미 원자재 투입물량의 증가라든지, 가격상승이라든지, 공사 지연, 업체 Claim

등으로 이미 발생이 예상되었던, 이미 누적적으로 예상되었던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제반정황상 2020년 1월 경영실적회의가 비상계획 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목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은 원가까지 모두 포함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Stress test 성격의 자료라고 주장하는데, '최악의 상황', 'Stress test'는 경영실적회의 자료에 그런 문구(wording)는 없는 것 같음. 그런데 회의자료에 보면 '1,200여억 원을 순차로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음. 그것은 이미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반영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당시는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이 문구(wording)가 왜 들어가 있는 것인지?

▶ (진술인) 2019년 11월에 구조조정 목적을 취합하기 위해 모든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2020년 2월에는 그것이 나뉘서 반영되어 있음.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련된 비용이 종합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원가절감을 하는 (안)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EPC가 모든 숫자를 한번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아무리 Worst로 보더라도 2021년, 2022년 나뉘서 발생할 수도 있다해서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림.

- (위원) 금감원 감리결과에 따르면 본사에서 자회사프로젝트



수주 여부나 입찰가격 결정, 2020년 1월9일 발주처 회의에  
본사 EPC BG장이 참석하였다, 2019년말 조직도에 보면 자  
회사 법인장 및 PM 등이 모두 본사 Plant EPC BG 소속이  
다 등 이 팩트(fact)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음.

- ▶ (진술인) 저희 주재원들의 사무실 번호가 서울지역번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 것  
으로 알고 있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있으며, 핸드폰으로 다 사  
용하고 있고 인사정보는 개인이 바꾸다보니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이 번호를 안 바꿔서 그것가지고 PM직원이 한국  
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위원) 금감원 감리과정에서 회사가 소명하는 지금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추가확인은 안 됐습시다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  
외에도 결재서류라든지, 월간보고서라든지, 주간공정회의 자  
료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본사가 밀접하게 관여해서 의  
사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  
의 밀접한 관여를 말씀드렸던 것임.
- (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2019년에는 손상징후가 없어서 손상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만일 금감원 주장대로 프로젝트 손실  
인식으로 손상징후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용가치를 고려해서  
손상검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자회사에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미래현금  
흐름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아서 DCF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임. 이에 대해서 회사 측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결국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수주 Pool과 Market share 이런 것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 가치는 타당한 것이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계속해서 본 건 프로젝트처럼 손실이 날 것이냐는 타당하지 않음.

- (보고자) 코로나와 상관없이 감사조서상에도 2023년부터 매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수주도 2017년부터 저가수주한 본 건 자회사 프로젝트 외에는 유의적인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볼 때 회사 미래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년 수주한다는 가정이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다는 금감원의 주장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본사 Plant EPC의 직원 59명이 자회사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그중 44명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본사 전화 번호부에서 자회사 소속임에도 '82'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동 전화번호는 본사에서 자회사 연락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번호이고 자회사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임. 둘째, 금감원은 본사의 사업관리총괄

이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Kick off meeting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뿐더러 사업관리총괄은 자회사뿐만 아니고 Plant EPC 전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부문에서 관리총괄에게 보고되는 자료인 PRS는 각 BG장 보고 목적이고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통제 파악시 감사인은 이해하였음.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감사인이 PRS를 보았다면 자회사 프로젝트의 손실 발생 여부를 바로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이 확인했던 2019년도 9월 PRS를 포함한 8개 샘플에는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샘플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그 한계를 생각해 봤을 때 금감원이 지적하는 자료를 샘플링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임.

- (위원) 금감원 입장에서는 감사인들께서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 이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2019년도 같은 경우 처음 감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도 권고를 했음. 본사의 내부통제기준 어디에도 이런 중속회사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없었음. 그리고 저희들이 샘플로 PRS도 보고 또 Risk/OE system에 대해서 본사 검토를 했는데 자회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음.

- (보고자) 회사는 QG시스템 중에 월간보고서로서 프로젝트별 리스크를 다 관리를 하고 있었음. 회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EPC 해외사업본부에서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감사인은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월간보고서를 확인 안 한 것임.
- (위원) 금감원은 부문감사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만 있을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감사인이 분석한 내용이 물적증거로 감리과정에서 제출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맞는지?
- ▶ (진술인) 2018년도에는 분명히 회신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 있음.
- (위원) 금감원은 2017년, 2018년도 Scope out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금감원, 이 말씀이 맞는지? 제출 받았는지?
- (보고자) 지금 감사인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 2018년도 조서 손상 검토할 때 일부 언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문감사인의 회신내역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없는 것이 맞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